신세계, 美·日 이어 동남아 영토 확장… K-패션 위상 높인다

대만·말레이에 '하이퍼그라운드'
양국 명품 쇼핑몰·백화점에 팝업
K-패션·뷰티 등 브랜드 순차 운영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 대만 팝업스토어 현장.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 대만 팝업스토어 현장. /신세계백화점

국내 유망 패션·뷰티 브랜드를 발굴해 세계 주요 도시에 소개해 온 신세계백화점의 해외 진출 플랫폼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Hyper Ground)'가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동시 상륙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 시부야 등 글로벌 거점에 이어 동남아시아 및 중화권 핵심 상권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K-브랜드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하이퍼그라운드는 대만 타이베이의 명품 쇼핑몰 '브리즈센터'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차세대 랜드마크인 '세이부(SEIBU) 백화점'에 각각 패션·뷰티 팝업스토어를 잇달아 오픈한다.

이번 대만 팝업은 타이베이 동취 핵심 상권에 위치한 브리즈센터 1층 명품관에서 열린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한 1층 공간에 K-패션 브랜드가 들어선 것은 한국 패션의 글로벌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신세계는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간결한 '뉴 클래식' 스타일의 '렉토(RECTO)'를 시작으로 '마리끌레르', '인사일런스(INSILENCE)' 등 감도 높은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6개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말레이시아 팝업은 쿠알라룸푸르의 신흥 금융지구 TRX(Tun Razak Exchange)에 들어선 쇼핑몰 '더 익스체인지 TRX' 내 세이부 백화점 1층에서 진행된다. 고소득 직장인과 젊은 소비층,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 특성에 맞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2030 세대와 K-팝 팬덤을 겨냥한 K-뷰티 중심 브랜드 10여 개를 릴레이 형태로 운영한다. 첫 회차에는 패션 브랜드 '마리끌레르', '탄산마그네슘'과 뷰티 브랜드 '헤드스파7', '파이브바이브', '딘토'가 참여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신세계의 행보를 두고 한국 백화점의 역할이 단순한 '수입 브랜드 유치'에서 '국내 유망 브랜드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전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지 유통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장성을 검증한 뒤 향후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확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뉴리테일 담당 박상언 상무는 "올해 뉴욕과 시부야에 이어 타이베이와 쿠알라룸푸르에서 하이퍼그라운드를 선보이며 해외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며 "각 시장 특성에 맞춘 K-브랜드를 꾸준히 소개해 경쟁력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전닉스의 추락… 증권사 목표가 '요지부동'

삼성전자 주가, 최고가의 50% 하락
한투·IBK투자 2곳만 목표가 하향
SK하이닉스는 62% 하락 했지만
투자의견 '매수' 되레 장밋빛 전망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시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과 '블루웨이브'(미국 민주당 압승)가 반도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의 낙관론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줄줄이 올리고 있다. 반면 투자자 사이에서는 "증권사 목표주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의문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만99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1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 대비 각각 50.03%, 62.16% 하락했다.

주가는 무너졌지만 증권사 목표주가는 꿈쩍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기준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47만2381원, SK하이닉스 305만4286원이다. 목표가대로라면 삼성전자는 148.75%, SK하이닉스는 168.86% 더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지난 2일 KB증권은 "내년에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의 확산이 메모리 수요 저변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기존에도 수요가 강했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키밸류 캐시(KV Cache)와 데이터 저장을 위한 고용량 D램 및 낸드(NAND)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처리장치(CPU)의 수요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0만원으로 유지했다.

다른 대부분 증권사도 목표주가는 유지하고 있다. 목표주가를 내린 곳은 한국투자증권(57만원→44만원)과 IBK투자증권(46만원→35만원) 두 곳뿐이다.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장밋빛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만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이 증권사 고영민 연구원은 "장기공급계약(LTA) 출하와 매출 비중은 올해 말까지 40%, 내년 50% 수준 전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619조원, 영업이익은 73% 늘어난 507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K증권은 "2030년까지 메모리 수요 우위 국면의 전망을 밝혔고 AI 인프라 투자의 강력한 명분과 메모리 수요의 구조 등을 볼 때 실적 가시성과 안정성 제고가 동반되는 국면"이라며 목표주가를 400만원으로 유지했다.

그나마 IBK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하향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하락장에서도 증권사의 낙관론은 꺾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시기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본격화된 2021~2022년이다. 당시 '국민주'로 떠오른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2021년 1월 11일 장중 9만6800원까지 오르며 당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곧 '10만 전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같은 날 증권가에서는 최고 12만원 목표주가(한국투자증권)도 제시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장기간 내리막을 걸었다. 반도체 업황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낙관 전망은 한동안 유지됐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넘게 7만원을 밑돌던 2022년 4월에도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는 여전히 10만원대에 머물렀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목표가만 보면 '바닥'인데, 주가는 외국인 매도에 크게 출렁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목표가라는 결과보다 그 숫자를 떠받치는 전제를 보라고 조언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약세는 2028년 이후 이익 전망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며 "목표주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기계약(LTA)과 AI 수요 및 수익성,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의 조달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AI 인프라 투자지속성 요인들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사 목표주가는 기업의 미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산출한 중장기 추정치이지 현재 시장에서 보장되는 주가가 아니다"라며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주가 자체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 반도체 가격, HBM 수요,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 외국인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주가가 급락하는데 과거의 낙관적인 전망만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AI 인프라 투자 중심 경제 성장세 양호"

KDI, 경제동향 11월호
"다만 소득증가 효과 확산은 미미
고유가에 따른 가계부담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 관련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타 부문으로의 확산은 미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대외 수요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과 투자가 높은 증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타 부문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동 지역 갈등 및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위험도 여전하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의 일시적 위축이 풀리고 건설업 부진도 다소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1.1% 늘어 전월(2.3%)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추석 시점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2.5일 감소한 영향 등으로,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3.0%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0.3%)와 기계장비(17.9%)의 호조에 더해, 자동차 부문 생산 차질이 해소되면서 1.2% 늘었다. 서비스업생산도 1.8% 증가했다.

소비는 최근의 부진을 일부 만회했으나 기조적인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8%)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했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3.6% 늘어 7~8월의 부진을 일부 만회했지만 6월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도 1.1%로 전분기(2.4%)보다 낮아졌다. KDI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물가 부담과 그간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양사, 창업 세대부터 신뢰관계 점진적 발전

>> 1면 '삼성-현대차, 미래 첨단…'서 계속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협력은 창업 세대부터 신뢰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85년 11월 투병 중에도 정주영 현대차그룹 창업회장의 고희연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백자를 선물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도 2001년 3월 당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 초청해 단독 회동했고, 이후 양대 그룹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0년 두 차례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논의했고, 2023년 삼성SDI와 현대차의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사업 협력이 구체화됐다.

이번 행사는 사업별·계열사별 협력을 그룹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기술과 현대차그룹의 완성차·자율주행·로보틱스 역량이 결합하면 인공지능(AI)을 산업 현장과 일상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양사는 각자의 핵심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접점을 확대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